

## 사이버 시대의 목회

박 홍규(침신대 조직신학 교수)

### 들어가는 말

사이버 시대의 목회에 대한 글을 부탁받았을 때 다소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이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이 글을 쓰기도 결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미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필자 또한 그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고민해 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sup>1)</sup>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글을 쓸려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필자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대해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이버 매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필자로서는 사이버 그 자체를 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가 선택한 것은 사이버 시대에 어떤 목회신학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이버 그 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목회관을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과 관련해서 목회신학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종종 듣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목회신학의 부재의 결과라는 소리도 종종 듣는다. 특히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사이버 시대의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 필자를 포함하여 목회자들이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던 원지 않던 사이버 시대의 진입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의 목회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의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문제 의식아래 사이버 시대의 목회와 관련해서 먼저 원어적인 측면에서 목회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교회가 무엇이며, 목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대의 변천이 목회개념에 어떤 변화를 주어왔으며, 우리가 살고 있고, 살게 될 사이버 시대에서 어떻게 목회개념을 이해할지를 역사적인 관찰과 더불어 살펴볼 것이다.

### 교회와 목회

사이버 시대의 목회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목회가 이루어지는 기관인 교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는 교회를 전제할 때에만 그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

---

1) 윤완철, "사이버의 세계를 클릭한다", 「목회와 신학」, 1998년 2월, 36-42를 보라. 또한 임성빈, "사이버교회, 그 장단점을 살핀다", 「목회와 신학」, 1998년 2월, 50-51를 보라.

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기에서 교회는 곧 사람이라는 단언은 교회하면 건물을 떠올리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에 대한 교정을 제시한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를 물질화하려는 잘못된 경향이 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 만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보다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을 생각한 것과 같다.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건물이라고 정의된 적은 로마 가톨릭의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는 그런 정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회중들 속에서 너무 쉽게 건물과 동일시되고 물질화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교회가 사람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그들은 자연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중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한마디로 교회는 ‘중생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교회에 속하면서도, 개별적으로 볼 때 그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sup>2)</sup>

그렇다면 목회는 무엇인가? 목회는 바로 이런 개별적인 인격 공동체를 먹이고 가꾸는 일을 하는 것이다. 목회의 어원인 *pascendo*는 ‘양떼를 먹인다, 돌본다’라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목회는 교회의 주체인 중생한 자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목회는 누가 하는가? 목회는 교회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pastors)이 하는 것이다.<sup>3)</sup> 비록 최근에 성도들 모두가 목회자라는 개념을 듣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분명 목회자들과 성도들 사이에는 신분적으로가 아니라, 직분적으로 구분이 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목회는 한다는 것은 목회자들이 교회 그 자체인 주님의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군 목자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경고하신 것처럼 목회에는 그 의미가 왜곡될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교회의 핵심이 사람이듯이 목회의 핵심도 역시 사람이다. 그것은 사람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는 물리적인 건물을 세우고, 제도나 관습을 고집하고,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든 목회적인 역량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될 것을 주문하신다<sup>4)</sup>.

그런데 문제는 21세기 초반을 사는 우리들은 전통적으로 이해하던 교회와 목회라고 하는 개념의 수정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소위 사이버 시대의 도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있던 시간과 공간, 주제와 객체, 본질과 비본질, 가상과 실재라는 개념에 대한 혁명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버

2) John Gill, *A Complete Body of Doctrinal and Practical Body of Divinity*, a New Edition, (1839, London), 852-59.

3) Ibid., 862-64.

4) 요 10:11-15.

(cyber)'라는 표현 그 자체가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일차원도, 이차원도, 삼차원도 아닌 '가상공간(cyber space)'이라는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로의 진입을 요청받고 있다. 이 공간은 비록 '가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가상이 아닌 실재로서 다가오고 있다.<sup>5)</sup> 몇 번의 클릭과 몇 번의 좌판의 사용으로 들어가는 이 '가상공간'은 더 이상 가상공간이 아닌 '실재공간'으로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교회나 목회의 개념 그 자체를 수정할 차비를 갖추고 있다.<sup>6)</sup> 더 이상 교회는 가시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으며, 목회 또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인격적인 사건이 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례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교제도, 심지어 명칭이기는 하지만 교회도 있다.<sup>7)</sup>

그러나 이런 소위 사이버 교회나 사이버 목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의 본질 그 자체를 왜곡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건물로, 목회가 프로그램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 시대의 교회와 목회는 그 본질이 사람 그 자체 보다는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다.<sup>8)</sup> 사실 사이버 공간이 실재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의 실재를 반영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 설령 실재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누구이며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공간의 참된 유용성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상의 사이버 교회와 목회가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상에서 성경적인 교회와 목회가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여 교회와 목회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은 이미 존재하는 교회와 목회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그것의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은 사이버 교회나 사이버 목회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교회와 목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sup>9)</sup>

## 상황과 목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교회와 목회 개념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과 목회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리처드 니이버(Richard H. Niebuhr)의 탁월한 역사적 분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교회사에 있어서 어떤 시대이든 그 시대에서 사용되

5) 윤완철, "사이버의 세계를 클릭한다", 36-42.

6) 가상공간과 실재공간과의 관계에 대해 마크스티브, 피터 콜록편, 조동기 역,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서울: 나남, 1999), 327-367를 보라.

7) 사이버교회와 관련해서 임성빈, "사이버 교회, 그 장단점을 살핀다", 「목회와 신학」, 1998년 2월, 50-54를 보라.

8) 김영한,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진단", 「목회와 신학」, 1998년 2월, 43-48를 참고하라.

9) Ibid.

었던 목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가 무엇인지, 목회로의 소명의 무엇인지, 목회자의 권위가 무엇인지, 목회의 대상인 사람의 성격과 필요가 무엇인지를 상황과 관련해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목회개념을 정리하고 목회신학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먼저 목회사역의 개념을 생각해보자. 니이버에 따르면 신약시대 이래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회를 관장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른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목회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유된 개념들이었지만, 시대에 따라 이 기능들 중 어떤 것은 핵심으로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기능들로 간주되었다. 크리소스톰에서부터 교황 피우스(Pius) 11세에 이르기까지 목회자의 핵심적인 기능은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제사장 목회자(priest-minister)라고 불려질 수 있다. 그들은 물론 가르치고, 설교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교회를 관장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의 목회활동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중세시대에 목회자들이 했던 주된 기능은 기술 중의 기술(the art of arts), 곧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중세 시대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관장했지만, 이 모든 활동들은 영혼을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종교개혁시대의 목회자들은 역시 목회의 모든 전통적인 기능을 감당했지만, 그들의 핵심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용서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설교 목회자(preaching-minister)라고 말할 수 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임무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목회의 활동들은 그 복음을 인격적으로나 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설교 중심의 목회는 웨슬리안적이며, 복음전도적이며, 경건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났을 때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니이버는 주장한다. 이들 시대의 목회자들은 종교개혁시대의 목회자들보다 설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특히 순회 설교가들에게 있어서 목회의 우선적인 기능은 회심과 성화에 기초를 둔 설교일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그들이 고정된 목회지에 부임해서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다른 목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을 때조차도,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의 핵심이었던 회심과 성화라는 직접적인 목적을 추구하는데 관심이 있었다.<sup>10)</sup>

반면에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목회사역에 대해 니이버는 “목회적 지도자(pastoral director)”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이 개념의 의미는 다른 무엇보다도 교회건물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의 교회는 더 이상 성례전과 미사를 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예배하고 교육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강단은 성례전을 행하기 위한 제단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한 강단으로 사용이 되며, 목회자가 연구하고 교육하고 상담을 하기위한 위한 공간들이 배치된다. 이것은 목회의 주된 기능이 설교를 포함한 예배를 인도하고 교육하는데 할애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목회자의 기능은 예배와 교육의 기능을 넘어서서 “빅 조정가(big operator)”로서의 역할

10) Richard H.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New York: Harper & Row, 1956), 58-63.

을 감당하게 된다. 그는 다양한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성도의 수를 늘려야 되는 마치 사업가처럼 교회의 운영을 하게 된다. 이것은 교회가 대형화되면 될 수록 더욱더 가중하게 된다. 그들은 마치 고대교회의 주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임무를 감당하게 된다. 비록 그들이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목회의 기능을 감당하지만, 목회적 지도자의 첫 번째 기능은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며, 그들의 설교의 방향은 교회의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설득하고, 상담하기 위한 목회적 설교의 방향을 띠게 된다. 그들의 설교는 복음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것이다. 이런 형태의 목회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복음은 선포를 넘어서 적용에 더 관심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의 수가 커지고, 목회가 더욱 전문화되면서 목회자들 안에 질서를 요구하게 되며 담임 목회자는 목회적 지도자로서 선생님 중의 선생, 상담가들 중의 상담가가 된다는 것이다.<sup>11)</sup>

우리는 목회의 개념에 대한 니이버의 역사적인 관찰에 대해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다. 비록 목회 자체의 본질이나 기능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강조점에 따라 목회는 어느 정도 다른 성격을 띠 수 있다. 이것은 시대가 변화됨에 따라 생겨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소위 사이버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목회의 개념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으며,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있고, 앞으로 가져다 줄 세계는 가히 이전의 세기들과 비교할 때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고, 가상의 공간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소형화와 통신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면 삶 속에서 컴퓨터의 도움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소위 유비쿼터스(ubiquitas)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sup>12)</sup>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을 누리게 될 때 목회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은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특히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 통합성(intergration),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네트워크화(network)는 주문형 교회(Church on demand)를 요청하게 되며, 또한 넷마인드가 가지고 있는 수평성, 평등성, 접근성, 협력성은 신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사역에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sup>13)</sup>

필자는 사이버 시대의 목회는 사이버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목회의 고유 기능인 설교, 성례전, 행정, 돌봄을 그 어느 하나에 핵심적 가치를 두기보다는 보다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설교, 성례전, 행정, 돌봄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이제 시간적이며 공간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효과적인 사용은 오프라인 상에서 구현되는 목회를

11) Ibid., 79-83.

12)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김창환, "IP 유비쿼터스 서비스동향",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센터). 필자는 이 논문을 매일경제 인터넷 신문 지식창고를 통해 알게 되었다.

13) 김진년,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목회 패러다임", 「기독교사상」, 494호, 2000년 2월, 14-24; "인터넷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기독교사상」, 503호, 2000년 11월, 129-137.

보다 입체적이며, 종합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사이버 시대의 목회는 아직도 현대 교회가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건물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물리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람중심이 되게 하고, 목회의 대상인 사람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 매체의 활용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사이버 시대는 목회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목회자’의 역할을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목회의 어느 하나의 요소에 강조점을 두는 목회자보다는 목회의 전 영역을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차원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수평성과 평등성을 기초로 하는 사이버시대에 목회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목회자들의 소명과 권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문제가 바로 니이버가 목회 개념의 역사적 변천에서 살펴보았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에는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은 목회자들과 인간적인 지명이 없이 신에 의해 직접적으로 임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부르심이든 목회자로의 부르심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Christian calling)과, 하나님으로부터 내적으로 주어지는 은밀한 부르심(secret calling)과, 목회적 재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초청이나 명령을 통해 주어지는 섭리적 부르심(providential calling)과 교회가 목회자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적 부르심(Church calling)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목회자로 부름에 나타나는 네 가지 요소가 목회의 기능들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따라 그 강조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sup>14)</sup>

고대 교회의 제사장 (priest) 개념의 목회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이은 섭리적 부름심이 가장 중요했다. 은밀한 부르심은 공적이며 교회적인 부르심 이후에 따라 나왔다. 그러나 부흥사적 목회를 하는 시대에는 내적인 부르심이 가장 중요했으며,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외적인 부르심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sup>15)</sup> 그러나 20세기에 대한 니이버의 진단에 따르면 비록 은밀한 부르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과거 100여년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약화되고, 오히려 섭리적인 부르심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목회로의 부르심은 더 이상한 개인의 고독한 몸부림 속에 주어지는 신에 의한 신비적인 부르심을 넘어서, 공동체의 매개를 통해 사회적 인간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확대되어 가는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20세기에 선호되고 있는 부르심은 바울이나 암브로스의 부르심이라기 보다는 스테반의 부르심이며, 프란체스코의 부르심이라기 보다는 어거스틴의 부르심이며, 폭스의 부르심보다 칼빈의 부르심이라는 것이다. 그 당시 젊은이들은 이상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된 공동체와 기관에 자신들을 일체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sup>16)</sup>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과연 사이버 시대에 목회로의 부르심은 어떤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수평성과 상호

---

14)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63-65.

15) Ibid., 65-66.

16) Ibid., 84-85.

작용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사이버 시대에 과연 ‘부르심’이라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질문에 대해 사이버 시대에도 여전히 목회로의 부르심은 여전히 목회자가 되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사이버 매체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인간은 종교의 씨앗(the seed of religion)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구속이 필요한 죄된 존재(sinful human beings)이기 때문이다.<sup>17)</sup> 그리고 이들의 신앙생활을 도울 수 있는 목회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부르심이 강조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필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사역자로서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중요하지만 섭리적이며 교회적인 부르심이 그 중요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모든 것이 ID 하나로 통하는 사이버 세상이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권위는 존재할 것이며, 특히 공신력이 필요한 사이버 교회나 사이버 매체를 활용하는 교회에 있어서 외적인 부르심을 통한 공신력의 확보는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적이며 내적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단지 외적인 권위에만 의존하는 목회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쉽게 그 권위가 무너지거나 해체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은 목회자의 권위(authority)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목회자는 어떤 권위로 소위 목회 활동을 감당하는가? 선지자들의 경우에 그들의 권위는 권위를 주신 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세는 애굽에 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냈다는 것이었다.<sup>18)</sup> 그리고 그의 권위는 카리스마적인 은사와 기적을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목회자의 권위가 언제나 이렇게 신적인 부르심이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이버는 목회자의 권위문제는 사회적이며 심리적이고 신학적이며 정치적인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와 국가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목회자의 권위는 목회자는 공적으로 임명되었고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데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회나 국가 내에서 학문적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고대의 이집트의 성직자들처럼 유일한 학문적인 그룹이었다. 그러나 폭넓은 지식층이 양산이 되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시대에 목회자의 권위는 국가가 부여하는 직위나 지식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혼을 돌보고, 교회를 관장하는 직접적인 권한을 성경과 교회에 호소하게 되었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제도적이며 공동체적인 인정을 얻었으며, 성경으로부터 가르치고 판단하는 교사요 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얻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이며 도덕적인 삶은 그들의 권위를 지탱하는 요소가 되었다.<sup>19)</sup>

제사장으로서의 목회자의 역할이 강조되던 시대에 목회자의 권위는 제도적인데 그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제도적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 우선이었으며, 이 후에 자기 삶

---

1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 iii. 1-3.

18) 출 3:14.

19) Niebuhr, *The Purpose of the Church and its Ministry*, 66-70.

에 대한 절제와 성경에 대한 연구가 따라왔다. 반면에 목회적 돌봄이 강조되던 시기에는 목회자의 권위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것에 그 강조점이 있었다. 이런 시대에 성경에 대한 연구와 자신에 대한 절제와 경험은 그들의 권위의 기초가 되었다. 종교개혁 당시에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록 제도적인 인정이 필요했지만, 성경에 대한 연구와 개인적인 적용,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삶의 절제와 훈련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복음전도적인 목회자의 역할이 강조되던 시대에 공적인 인정은 비교적 사소한 문제가 되었고, 대신에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그 권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sup>20)</sup> 그러나 니이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려들지 않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다. 개인주의적이며, 민주적인 사고가 팽배한 시대에 목회자는 어디에 자신의 권위를 두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사장적 목회 개념이 팽배하던 시대에는 제도적 권위에, 설교가적인 목회개념이 보편적이던 시대에는 성경적 권위에, 목회적 지도자(pastoral director) 개념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공동체적 권위(communal authority)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위의 해체를 주장하는 탈권위주의 사회에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해석하고, 공동체를 대변하고, 공동체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자, 그렇다면 21세기 사이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목회자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이버 시대의 목회자는 더 이상 일반 지식 뿐 아니라, 신학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의 독점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기 어렵다. 성도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의 교육이나 설교가 없어도 사이버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전문 상담 네트워크를 통해 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훨씬 선호한다. 우리는 분명 니이버가 살던 시대보다도 더 급격한 권위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속에서 필자는 사이버 시대에도 니이버가 제시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생각을 해석하고 대변하고 순종하는 데서 목회자의 권위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사이버 시대는 사람을 수평화하는 기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상호작용의 기능도 있다. 사이버 매체는 사람을 그 어느 때보다 인격적 교체를 도외시한 채 개인화하고 고립화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만, 역으로 그것은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보다 밀접한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시대에 지역적 공간을 넘어선 사이버 공간에의 참여는 성도들 간의 상호작용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여 줄 수 있다. 이런 시대에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고, 성도와 성도를 묶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강화시켜줄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목회자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쉽게 권위가 붕괴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내적인 확신과 더불어 체계적인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20) Ibid., 71-74.

21) Ibid., 86-91.



마지막으로 목회에 대한 개념,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목회자의 권위의 문제에 이어 우리는 목회를 하는 대상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목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사실 목회의 성격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레고리는 자기 시대의 사람들을 성숙하고 죄인이며 죽을 운명에 처해있는 사람들로 평가했다. 그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돌보는 것에 있었다. 종교 개혁가들에게 있어서 목회의 대상은 위엄이 있지만 파괴되어 있는 피조물이었다. 그들은 밀톤의 아담처럼 “파괴된 예술 작품(a ruined work of art)”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와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의사이며, 사회사업가이며, 선생이며, 법률가였다. 그러나 근대 시대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사람을 신학적 인간에서부터 자연적 인간으로 서서히 대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인간을 종교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며 자연적인 인간으로, 더 나아가 정치적인 인간으로 이해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의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에 대한 돌봄보다는 자연적,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구원에 대한 외침은 더 이상 지옥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불안과 소외와 분열에 대한 극복과 자기 혹은 공동체적 정체회복에 대한 외침이다. 이러한 목회대상의 변화는 결국 목회에서 강조점의 변화를 가져왔다.<sup>22)</sup>

그렇다면 문제는 사이버 시대에 목회대상자들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급격한 요구의 변화를 겪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비록 니이버가 제시한 대상에 따른 목회개념의 변화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의 지적을 무시할 수 없다. 분명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옥, 죄, 회개, 용서라는 개념은 종교개혁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소외, 고독, 불안, 부조리와 같은 실존주의적 용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21세기 사이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악성코드, 해킹, 바이러스, ID 도용,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과 같은 용어가 더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다. 분명 사이버 매체는 목회의 대상인 사람들의 의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그 자체를 바꾸지 못하듯이 죄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들은 여전히 파스칼이 지적한 가슴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Leer)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구속주의 중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이다. 이 말은 사이버 시대에 우리는 인간의 필요를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어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그 자체를 도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이버 매체의 발전이 인간을 공작인(home faber)로서 위치를 격상시킨다고 하더라도,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죄인(homo peccator)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매체의 발달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필요 그 자체를 바꾸지 못할지라도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나 수단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

---

22) Ibid., 74-79.

다.<sup>23)</sup> 머지않아 소위 유비쿼터스의 시대가 도래할 때 사람들은 사이버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존재론적인 필요를 더욱 쉽게 채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사이버 시대의 목회를 하기 위해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 내에서 목회는 무엇이며, 목회자의 부르심은 무엇이며,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며, 목회의 대상에 따라 목회의 강조점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사이버의 상황과 목회와의 관련성에 대한 역사적 관찰은 사이버 시대의 목회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것은 어쩌면 막연한 예측인지도 모른다. 아직도 사이버 시대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만큼 사이버 매체가 몰고 올 변화는 가히 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분명 21세기 컴퓨터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어떤 형태든 교회와 목회에 그 이전의 시대와 다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 얼마나 키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

23) 김영한, “가상공간에 대한 신학적 진단”, 46.